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9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 당 자	• 교통정책팀장 김영신 ☎440-3851 • 담당자 채홍기 ☎440-38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통공사), 서울7호선 부천구간 운영권 연장 전격 합의

- 인천교통공사-부천시, 서울7호선 운영권 관련 신규 협약 체결 -
- 공사, 역무·승무·기술 분야 운영맡고, 위탁수수료 현실화, 안전인력 확대 하기로 -

오는 3월 28일 인천교통공사의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운행중단이 우려됐던 서울 7호선 부천구간(까치울~상동)의 운영권 합의가 전격 이뤄지면서 운행이 중단없이 계속되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인천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서울 7호선 운영권 관련 신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교통공사가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7호선 부천 구간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권 협약 관계 기관 간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부천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협약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해 왔으며, 2022년 1월 부터 운영권을 재조정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역무, 승무, 기술 분야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오는 3월 28일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련기관 간 세부사항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운행중단이 우려됐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서울7호선 부천 구간의 역무, 승무, 기술 분야 운영은 인천교통공사가 맡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수수료 현실화, 안전인력 46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운영권 협약을 통해 위탁수수료 현실화 및 안전 인력 확충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운영 중인 까치울~석남(11개역) 구간에 이어 앞으로 추가 연장될 청라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시철도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 면서, “인천시민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7호선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서울 7호선 노선도】



【서울 7호선 승강장(까치울역)】

